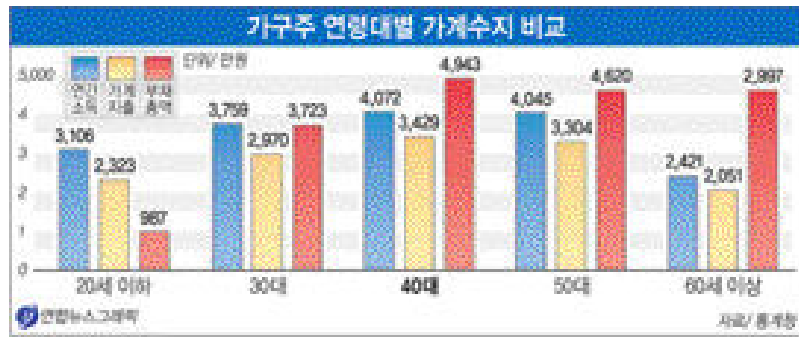


# '40대 가구주' 가장 많이 벌고 많이 쓴다

### ■ 통계청, 2006 전국 가구 가계수지 동향

### 교육비 등 지출 많아... 빛도 소득·학력順

### 50대 가구주 순자산 가장 많아 '알부자'



가정이 40대인 집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의 가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부채와 가계지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가장의 가구는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이 가장 많았고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총액과 부채 보유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가장 가구 최다 수입·소비 = 12일 통계청의 2006년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동향과 가계자산 조사결과에 따르면 40대 가구주 가구의 연간소득은 4천72만원으로 연령대별 가구 소득 중에서 가장 많았다. 40대 가구주 가구 다음으로는 50대 4천45만, 30대 3천759만원, 29세 이하 3천106만원, 60세 이상 2천421만원

등의 순이었다. 40대 가장 집의 지난해 가계지출은 3천429만원으로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많았고 50대 3천304만원, 30대 2천970만원, 29세 이하 2천323만원, 60세 이상 2천251만원 등의 순으로 40대의 뒤를 이었다. 부채총액도 40대 가구 4천943만원, 50대 4천620만원, 30대 3천723만원, 60세 이상 2천987만원, 29세 이하 987만원 등의 순으로 40대 가구가 가장 많았다.

◇알부자는 50대 가장 집=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의 순자산(총자산-부채총액)은 50대가 3억2천6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세 이상 2억9천79만원, 40대 2억5천317만원, 30대 1억4천278만원, 29세 이하 4천432만원 등이었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50대 가구주 가구는 2억9천723만원을 보유해 2억7천72만원의 60세 이상, 2억2천597만원의 40대, 1억1천598만원의 30대, 2천138만원의 29세 이하를 모두 제했다. 5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도 1억6천47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 가구주의 가구보다 많았다. 50대 가구주 가구의 부동산자산과 주택자산 보유비율도 각각 85.0%와 81.1%로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80%를 넘었으며 토지·건물·분양 및 중도금 납입액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자산 보유비율 역시 50.9%로 최고였다.

◇많이 벌고 배울수록 빛 많아=가구주 학력별 가구의 부채총액은 대학 졸업 이상 6천462만원, 고졸졸업 3천678만원, 중학교 졸업 2천744만원, 초등학교 졸업 이하 1천512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돼 학력이 높을수록 부채도 많았다. 금융기관 대출, 세입자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 등 어떤 형태로든 부채가 한 푼이라도 있는 가구의 비율도 대출 이상 95.8%, 고졸 89.6%, 중졸 79.3%, 초졸 이하 56.3% 등 부채총액 순서와 같았다.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대출 이상 94.8%, 초졸 이하 52.2%로 가장이 대출 이상인 집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있지만 가장이 초졸 이하인 가구는 절반 정도만 금융기관 대출이 있었다. 또 가구의 소득수준별 부채총액도 소득 상위 20%가 8천258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위 20%가 1천426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는 등 소득수준과 부채총액이 비례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외환銀 매각은 불법

### 감사원, 금감위에 적정조치 촉구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과 관련, 금감위원회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수출입은행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양천식 전 금감위 상임위원 등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난에 따라 별도로 주의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9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12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비닐 지퍼백 배포

아시아나항공과 식품보관 전문업체 지퍼락은 국제선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승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닐 지퍼백 3만장을 한달간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대그룹, 이익 감소·세금 증가 '이중고'

10대그룹이 지난해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10대그룹 68개 계열사의 손익계산서를 집계한 결과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총 26조1천576억원으로 전년 대비 9.44% 급감했으나 내야 할 법인세는 총 5조411억원으로 2.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19.27%로 1년 전보다 2.3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05년의 경우 대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을 하던 해에 세금을 돌려받는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 세금부담을 줄였

으나 작년에는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한 데다 과거에 내지 못해 납부기간이 연기된 세금이 이번연세에 추가된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0조7천265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법인세는 1조6천317억원으로 20.57% 급증해, 법인세 납부금액이 10대그룹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3조8천354억원으로 무려 37.4% 급감했으나 법인세는 9천399억원으로 15.22%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 공정위, 유치원비 담합 조사 착수

### 광주 등 대도시 중심 수업료 인상 과정 파악 나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육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수업료를 시작으로 '담합 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유치원 수업료 뿐 아니라 전국 대학 등록금 담합인상에 대한 사전 실태 조사와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교복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며 학원비 등 사교육시장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중이어서 교육시장 전반에 대해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 수업료에 대한 담합 인상에 대한 조사가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2-3년간 지역별 유치원연합회 등이 회의를 열어 역대 유치원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을 등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의 단체가 지

난 2005년부터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인상을 결정한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사립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유치원들의 수업료가 초중고의 수업료보다 높은 경우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치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역대 연합회 단체 등을 통해 인상을 논의하고 담합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 내일부터 열람

건설교통부는 12일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작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871만가구)보다 32만가구, 3.7%가량 증가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공금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제출은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의견청취 및 재조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식된다. 한편 1월31일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같은 기간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 4월30일 공식된다. /연합뉴스

## 한국의 부동산 정책

### 현실 감안한 차선책

### OECD 밝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지난 7일 경제정책검토위원회(EDRC)를 열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EDRC는 OECD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일정 주기별(18개월)로 검토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위원회로 OECD 사무국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측 대표단은 EDRC에서 정부의 거시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주택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불가피성, 향후 정책 방향, 정책 일관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자업계,工大 순위 매긴다

### 산업 기여도 평가...올해 말 발표

국내 전자산업계가 각 공과대학의 산업계 기여도를 평가,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공학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와 공과대학 교육 간의 질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과대학의 전자업계에 대한 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 올해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 사업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과대학 혁신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연말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및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시행하는 것이라고 진흥회는 설명했다. 진흥회는 전자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 수준을 공과대학에 전달함으로써 대학의 공학교육 혁신을 유도,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기술 인력을 배출한다는 게 취지라고 덧붙였다. 진흥회는 이를 위해 전자업계 인사를 주축으로 한 진흥회 산하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각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커리큘럼과 배출인력에 대한 산업계 만족도, 산·학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가전제품 할인 조심!

### 인터넷 쇼핑물 사기피해 속출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를 찾았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PDP TV 상품을 찾은 A씨는 상품 판매자 B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상품 구입을 결정했다. 현금 거래를 해야 카드 수수료만큼 싸게 판매하겠다는 설명에 제품 대금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한 A씨는 결혼 날짜가 다가와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B씨에게 연락했지만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봄철 결혼 시즌을 앞두고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뒤 자취를 감추는 가전제품 관련 인터넷 쇼핑물류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전제품 쇼핑물류에서 고가의 PDP TV, LCD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물건을 배송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6개 사이트, 51건이었고 이 중 봄철 결혼 시즌을 앞둔 2~3월에 발생한 피해가 4개 사이트, 31건에 달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쇼핑물류는 'TMARKET', 'WLCD', '와와114', 'CC물', '가까가전', '카키아' 등으로 이들 사이트는 '연말', '다음은캐' 등 유명 오픈마켓에 싼 가격으로 상품을 올려 소비자들의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야"

### KDI, 금융·세제·공장입지 등 완화 주장

대기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시장 친화적이거나 시장 자체의 규율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투자는 민간부문의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됐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의 개선을 통해 민간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투자와 관련한 금융·세제·공

장입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입지에 대한 규제와 경우 정부의 직접적, 일률적 규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나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는 전반적으로 투자가 촉진되도록 한다는 대국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를 비롯한 대기업 지배구조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신원전자정밀	환경업무담당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15	062-944-8471
(주)민정정보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 웹 프로그래머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5	062-653-2879
(주)L.S.T	사무관리직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15	062-650-6545
드림정보통신	[주5일]TM/고객상담/팀장급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6	010-5500-7975
신성하이텍	2007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6	062-952-1441
광주인텔	일본 해외영업 및 기획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6	062-944-0111
서양기계공업	기술연구소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600~2800	03/17	062-951-0081
(주)리포토닉스	정규직 사원모집(국내외영업/총무시설관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7	062-600-0012
(주)동화하이테크	정규직 여직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17	062-949-8321
(주)넥스에스디	(주)넥스 영업지사 영업팀장 및 영업리얼매니저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3/18	02-2019-8000
(주)HRN	SK텔레콤 미납고객 상담원 모집(주5일)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19	062-529-2671
(주)대홍산업	해외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03	062-953-8585
장원교육문화회	[장원교육문화회]진철한 장원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08	051-465-6664
(제)상무대학직업전문학교	전역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31만원 지급	모집중	062-606-70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